

가족 목소리 위조... 보이스피싱 고도화로 피해액 2배 급증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줄었지만 평균 피해액 2배 늘어 1500만원 악성앱, 딥보이스, 쿨싱 등 악용 피해자 상황 맞춰 수법 고도화 가족·지인 금전거래 응해선 안돼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평균 피해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딥보이스(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민병덕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835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했던 1만733건 대비 2381건 감소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같은 기간 총 피해 금액은 12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19억원(49.1%) 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지난해 평균(8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시스

이는 '악성 앱', '딥보이스', '쿨싱(QR코드를 활용한 사기 웹사이트 접근 유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피해자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16%는 60대 이상 고령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지인이 갑작스러운 금전 거래를 요구하더라도 응해선 안된다. 인공지

능 기술 발달로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딥보이스' 기술이 등장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금전 요청을 받는다면 즉시 응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확인을 거쳐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악성 앱을 통한 통화 탈취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확인 과정에는 가족이나 이웃 등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해야 한다.

또한 택배 안내, 공공기관 공문 등을 사칭한 문자·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악성 앱'은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통화 및 메시지 이력 등 개인정보

를 빼돌리고 원격 조작·통화 탈취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해선 안 되며, 신뢰할 수 없는 연락처로부터 수신한 문자나 URL에 연결하면 안 된다. 또한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전 통화·문자 앱을 통해 문자 수신 시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각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지원하는 '악성 앱 탐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체를 마쳤더라도 '계좌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구제도 가능한 만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각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금융·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가족·지인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전 요구를 받는다면 반드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골프장 할인원하고 100만원 받으세요

신한카드가 할인원 100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다. 행사 기간 내 골프장 라운딩 그린피를 결제하고 행사에 응모한 고객 중 할인원을 기록한 고객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혜택은 선착순 10명에게 지급한다.

같은 기간 라운딩 당일 음식점과 주유 업종에서 결제한 고객 10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준다. 그린피와 음식점, 주유 업종을 모두 결제하면 당첨 확률이 2배 높아진다. 체크카드와 법인카드는 혜택에서 제외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 홈페이지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최대 90% 할인혜택 'M100 페스타' 진행

현대카드가 자체 쇼핑몰에서 최대 90%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현대카드는 'M-MALL(M몰)'에서 'M100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상품 구매 시 M포인트를 최대 1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호텔과 고매, 모바일 이용권 등에는 포인트를 사용이 불가능하다. 매주 럭키드로우 행사를 진행한다. 금요일 낮 12시에 진행하며 뱅앤올룹슨 헤드폰, 아크테릭스 등산화 등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코세페 할인·경품지급 수험생 응원 행사도

KB국민카드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수능 기간에 맞춰 할인 경품 지급 행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2024코세페! 쇼핑하고 위시타워 받자' 행사를 펼친다. 추첨을 통해 LG 위시타워 및 스타일러 등을 지급한다. 추첨 기회는 100만원 이상 이용 시 1회 제공하며 100만원 초과 이용금액에서 50만원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추가 적용한다.

오는 28일까지 이마트에서 빼빼로와 김장채소, 가전 등 인기 품목을 즉시 할인한다. 이어 홈플러스에서는 27일까지 특정 품목 즉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달 14일까지는 '2025수험생을 위한 전국민 응원 프로젝트' 댓글 행사도 마련했다. KB페이 쇼핑 내 행사 페이지에서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하여 중근당건강 아임비타 이분산 선물 세트를 증정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주거부터 호텔·쇼핑몰까지... '강북 핫플레이스' 기대

부동산 현장 르포

HDC현산 '서울원 아이파크'

강북 최대규모 신축, 교통호재 풍부
관광객 유치·현산 본사 이전 계획도
인근 품림아파트 시세 5억 이상 경증

최근 방문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한창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서울원' 프로젝트다.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하는 서울원 부지는 약 15만㎡에 달한다. 이 안에 주거 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들어서면 반경 1km 안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를 11월 중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7층, 6개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가 들어선다. 단지와 인접한 광운대역은 기존 1호선뿐만 아니라 6호선, 7호선도 이용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서울원'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서울원 아이파크' 시공이 한창이다. 뒤에는 '한진한화그랑빌' 아파트가 보인다.

/전지원 기자

할 수 있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광운대역~강남(삼성역) 구간이 9분 만에 연결된다.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소를 하는 A씨는 "강북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원 아이파크의 경우 강북 최대규모 단지, 신축이란 장점은 당연하고 중랑천 지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남까지 가는데 교통도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원 아이파크 내 레지던스로 위

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5성급 메리어트 호텔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들어올 예정이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근처 장위동 '장위뉴타운 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의 경우 분양가가 13억~14억원으로 책정됐다"며 "기준에 들어선 품림아파트 등이 8억~9억원으로 이미 5억원 이상 시세가 올라간 상태"라고 전했다.

관심도가 높은 상태여서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15억원까지도 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쇄적 파급효과는 교통망을 따라 이동하며 교통허브 일대에서 발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5년간 아파트값이 30.1%나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 올해 지역별 거래량 상위 자치구에도 노원구(2892건)는 송파구(2995건)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예고하는 개발 소식이 구체화하자, 광운대역 일대 주택시장 재평가도 한창이다. 광운대역에 이웃한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114㎡는 9월에 10억9000만원으로 거래돼 올해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최고 9억 3000만원에 거래된 타입인데 1년도 되지 않아 1억6000만원이나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개발이 물꼬를 튼 만큼 주변 정비사업으로 개발 열기가 번지면서 새 단장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둘째 주 전국 10곳서 7670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7670가구(일반분양 593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서

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푸르지오더파크',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 시티한신더휴',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전주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 경기 안

양시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 경기 군포시 둔대동 '군포대야미디에트르스그니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1개동, 전용면적 84~150㎡, 총 1126가구 중 8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와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부성역(가

청, 2029년 예정) 개통 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아크로베스티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10개동, 총 1011가구 중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역세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촌IC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좋다.

/전지원 기자